

투데이

물품·용역 계약, 수기 접수→전자입찰 심의위원 임기 1년, 공무원 참여율 축소

계약제도 전면 개선...광주시-시민단체 전담반 구성

광주시가 올해 발주한 각종 주요 사업이 입찰 불공정 의혹(광주일보 11월 16·21·23일자 1면)에 휩싸이면서 따라 각종 계약 제도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우선 단기(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에 의한 공사발주는 가급적 지양해 나가기로 하고, 평가위원에 대한 중간 및 사후평가제를 각 사업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1년에 한번 하도록 돼 있지만, 사업별로 실시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겠다는 의지다.

또한, 심의위원이 평가한 설계 적격 심의 및 평가 점수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심의위원이 업체와 접촉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의에서 배제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심의위원이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한 사실이 적발되면 민간위원은 퇴출하고, 공무원 위원은

징계 및 '원아웃 퇴출'을 병행한 것은 물론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도 할 계획이다. 유착관련 업체는 선정 탈락 및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현행 2년인 심의위원 임기를 1년으로 변경하고, 심의위원의 50% 이상인 공무원 참여율 축소 및 과거 평가방식이인 전국 풀(Pool) 명부에 의한 평가 단일 위원을 선발하는 방식으로의 환원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물품·용역 계약은 기존 입찰참여업체가 직접 가격제안서를 접수하는 수기 방식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사의 경우는 나라장터 G2B 시스템이 지원되지 않음에 따라 수기로 접수하되 가격제안서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입찰 참여자의 참석 아래

개봉해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 방안이 각종 민원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입찰참가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편리한 입찰절차 시스템으로 정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시민단체는 시 산하 공기업의 인사와 입찰 행정 개선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병록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임낙평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등 시민단체 관계자 6명은 24일 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시 산하 공기업 인사와 총인 시설 및 CC(폐쇄회로)-TV 입찰을 둘러싼 잡음과 관련해 전담반을 구성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전담반은 시 공무원과 시민단체 및 시의회 추천 인사로 구성된다.

이 부시장은 간담회 후 브리핑을 통해 "시와 시민단체는 각종 시정 현안에 대해 자주 만나 의견을 좁혀 시정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해상교량 가운데 국내 최초로 자전거·보행자 도로와 차도가 나뉜 복층 교량으로 건설된 고흥 소록도~거금도 간 거금대교가 완공됐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u@kwangju.co.kr

고흥 소록도~거금도 '거금대교' 내달 16일 개통

길이 2028m...국내 최초 자전거·보행자 도로 복층형

국내 해상 교량 가운데 최초로 자전거·보행자 도로를 갖춘 복층교량인 거금대교가 착공 9년만에 완공됐다.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은 고흥 소록도와 거금도를 연결하는 거금대교가 완공돼 다음 달 16일 개통 행사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고흥군 금산면 대흥리(거금도)와 도양읍 소록리(소록도)를 연결하는

거금대교는 지난 2002년 12월 착공했으며 2028m(사장교 1116m, 접속교 912m) 규모로 총 273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국내 해상교량 가운데 최초로 차도와 자전거·보행자 도로를 구분한 2층 복층 교량형식을 도입했으며 중앙 부면에 167.5m에 이르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주탑 2개가 케이블로 연결된

사상교다.

거금대교가 완공되면 지난 2009년 개통한 녹동항과 소록도를 연결하는 소록대교(1160m)와 연계해 지역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김일평 익산지방국도관리청장은 "소록대교에 이어 거금대교가 완공되면서 소록도와 거금도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옥기자 jwpark@

女커트 7100원→1만1800원

개인서비스 요금 올 4천원 ↑

미용실·목욕탕 가기 겁난다

광주와 전남지역 미용실 여성 커트비용이 올해에만 3700~4300원 이상 치솟는 등 개인서비스 요금이 물가급등을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료와 목욕료, 세탁료, 자장면 가격도 많이 올라 서민 가계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광주지역 미용실에서 여성이 커트하는 비용은 1만 1800원으로, 지난 1월의 7111원에 비해 65.9%인 4689원이 올랐다.

전남에서도 지난달 말 현재 1만 2333원으로 올 초 8583원보다 43.7%인 3750원이 올랐다.

서울에서는 여성 커트 비용이 지난 10월에 1만4909원으로 1월의 8918원보다 5991원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연초보다 67.2%가 비싸졌다.

남성들이 찾는 이윤실 요금도 사정은 비슷하다. 성인 남성의 평균 커트 비용은 광주가 9000원, 전남이 1만1889원이었으며 서울은 지난

1월 8224원에서 10월 1만원으로 1776원 올랐다.

유가 상승 탓에 대중목욕탕 이용도 줄어들었다. 지난달 말 현재 광주지역 성인 평균 목욕요금은 4700원으로, 올 초 3875원보다 825원이 올랐다. 10개월 새 21.3%가 급등한 셈이다.

외식 단골 메뉴인 자장면 값은 지난 10월 현재 광주와 전남 모두 평균 4000원이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1월부터 10월 사이에 최대 700

원가량 급등했다. 충북이 지난 1월 3833원에서 10월 4500원으로 667원 올랐으며, 인천은 492원, 서울·강원은 445원이 올랐다.

소비자인 측은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가 오를만한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개인서비스업은 지나치게 가격을 올린 경향이 있다"며 "개인서비스는 서민 의식주와 직결된 만큼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총행기자 redplane@

광주에 LIG 손보 고객센터

2012년까지 200석 규모로

광주시에 국내 손해보험업체의 대표주자인 LIG손해보험의 고객센터를 유치했다.

강운태 광주시장과 장남식 LIG손해보험 사장은 24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고객센터유치 투자양해각서 조인식을 가졌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광주시는 고객센터 설치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LIG손해보험은 광주 상무지구 고객센터 전용빌딩에 우선 110여석 규모의 고객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LIG손해보험은 광주 고객센터를 오는 2012년까지 약 200석 규모로 확장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에서는 42개사가 8492석의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토지박람회 둘러보는 차지사

토지박람회가 25일까지 지역학회 포럼과 축장총사자 워크숍, 공인중개사 간담회 등으로 진행된다.

'제3회 토지박람회'가 24일 전남도청 김대중홀에서 '하늘·땅·지하! 더 큰 녹색전망'을 주제로 개막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공간정보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25일까지 지역학회 포럼과 축장총사자 워크숍, 공인중개사 간담회 등으로 진행된다. <전남도 제공>

뉴스 브리핑

케이블TV 지상파 HD 중단 보류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당초 24일 낮 12시로 계획했던 지상파 디지털 방송 중단 계획을 보류했다. 지상파 방송사와의 재송신 대

가산정 협상이 타결 가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은 그동안 지상파 방송의 케이블TV 재송신에 대한 대가 산정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왔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최대 400원 인상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 이어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최대 400원 오른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8일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9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100~400원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전남도 캄보디아 해외농업개발 협약

전남도는 24일 캄보디아 캄프스프 주청사에서 H. E. 강 흥 주지사와 송 종원 전남해외농업개발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경지 2000ha 제공 등에 관한 교류협력 협약을 맺고 농지를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기로 했다.

양 지방정부간에 농산물 건조·저장시설 건설과 바이오매스 산업, 비료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앞으로 저렴한 노동 인건비와 토지에서 확보가 가능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협약 체결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지에서 확보한 토지에서 생산된 원료를 국내로 반입·가공해 주된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캄보디아와의 농축산 협력이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제16회 전국 스피치 가능 경시 및 유치부·어린이 응변 발표대회

- 일시 : 2011년 12월 18일(일요일) 오전 9시
- 장소 : 광주광역시 여성발전센터 강당 (상무지구)
- 주최 : 한국응변연설인중양회
- 주관 :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연설.리더십지도자과정)
- 후원 :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상종류	시상 순격	수여 인원	시상 부분	부상
전체 대상	국회의장상	1명	전체 참가 연사중 가장 우수한 연사 1명	대형 은배 장화급
전체 최우수상	통일부장관상	2명	학생부(유·초·중·고)와 대학일반부 중 가장 우수한 연사 각 1명씩	대형 은배 장화급
각부 대상	광주광역시시장상 전라남도지사상	10명	유치부,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중등부, 대학일반부, 각 2명씩	대형 트로피 장화급
각부 최우수상	광주광역시교육감상 전라남도교육감상	12명	유치부(4명),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중등부, 고등부 각 3명씩	중형 트로피 장화급
각부 우수상	광주광역시시회의장상 전라남도시회의장상	24명	유치부(4명),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중등부, 대학일반부 각 4명씩	트로피 또는 시계 장화급
단체 우수	국회의고등학생동맹위원장상	3명	초등부1팀, 중등부1팀, 대학일반부1팀	우수기 장화급

■참가내용: 우리말 우리글 바로쓰기 및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 통일기반구축을 위한 내용으로 아래 소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연설은 자유로 한다.
 • 우리말 우리글의 뿌리를 알고 바로쓰기 위한 방안
 • 그 외 유치부는 자유제 가능

■발표시간: 유치부 2분, 초등부 3분, 중·고등부 4분, 대학·일반부 5분
 ■접수마감: 2011년 12월 13일(화요일) 17:00
 ■접수처: 503-230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142-2 (2층) 한국응변연설인 중양회
 TEL. (062)385-7997, FAX.(062)528-1020, 010-5692-9998

■평예대회장: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대회장: 김종열 (한국응변연설인중양회이사장, 고려인상제품공사 대표)
 ■대회진행지원위원장: 한상백 (한국응변연설인중양회 회장)
 ■심사위원: 대통령상 수상자 및 관계기관전문가, 언론인 등으로 구성 (추후발표)

부동산 특급정보! 부동산 재테크 무료특강

최근 부동산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살펴보고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성공투자전략을 찾을 수 있는 특별세미나를 개최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최근 부동산시장전망, 부동산경매, 토지투자성공전략

강사. 정영수 전남대 경영학박사
 -경영학박사(부동산마케팅 전공)
 -전남대 평생교육원 부동산학과 주임강사
 -전남대 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강사 역임

강사. 김영표 전 현대그룹 팀장
 -현대그룹 팀장근무, 엑스티드 제테크강사

강사. 박관식 원부동산 연구소장
 -애양대 부동산재테크 전임강사, 롯데백화점 전임강사
 -(사)대한부동산학회이사, 기업학 등 특강100회 이상 출강

● 일 시 : 2011년 11월 25일(금) 오후2시
 ● 장 소 : 광주은행본점4층 강연장(롯데백화점 주차)
 ● 강의료 : 무료 (강의교재비 2,000원 별도) (선착순 90명 마감)
 ● 후 원 : 다와옥션 경매이용권(3만원) 무료제공, 매경출판 33,000원 후원 (5명정)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062)221-1810~2 mobile 017-613-1808

2011년 11월 26일 개최기로 한 제1회 호남의향 범국민 통일경기대회를 2012년 3월 15일 『제 1회 호남의향 범국민 통일 대회』로 연기 했습니다

시대의 고비마다 혼연히 나섰던 호남의향(義鄉)의 호남4.19가 이시대의 마지막 과제인 남북통일을 하늘이 내린 사명으로 알고 통일 실천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4.19의 기폭이 된 3.15의거가 광주가 첫 시위지였음을 강조하고 위대한 호남정신을 살리므로써 통일의 의지를 다잡고 미완의 4.19와 세계인권도시 광주의 완성을 더욱 다지기 위해 행사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4.19정신과 함께 해 오신 전 국민께 대회취지를 더해 인사말씀을 드리게 됨을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 시 : 2012. 3. 15 (목) 14:00
 □ 장 소 : 광주 금남로 5.18 광장

호남4.19의향 범국민 통일대회 중앙집행회